

# 호남정맥 방문자의 이용행태와 전통적 지리체계인지 연구

김차권\* · 정태열\*\* · 김동필\*\*\* · 강기래\*\*\*\* · 이해주\*\*\*\*\* · 김창준\*\*\*\*\*

\*경북대학교 대학원 조경학과 · \*\*경북대학교 조경학과 · \*\*\*부산대학교 조경학과 · \*\*\*\*부산대학교 생명산업융합연구원 · \*\*\*\*\*국립수목원

## I. 서론

조선 시대 우리 조상들이 인식하였던 산줄기 체계는 하나의 대간(大幹)과 하나의 정간(正幹), 그리고 이로부터 가지를 친 13개의 정맥(正脈)으로 이루어졌다. 『산경표(山經表)』에 근거를 둔 이들 산줄기의 특징은 모두 강을 기준으로 한 분수산맥으로, 그 이름도 대부분 강 이름에서 비롯되었다. 호남정맥은 호남지방을 남북으로 관통하는데서 비롯한 이름이다. 호남정맥을 기준으로 서해안지방은 평야지대로, 남원방향은 산악지대로 자연적으로 구분되고 있다. 호남 정맥은 전라북도 진안군 부귀면과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의 경계에 있는 주화산(565m)에서 시작하여 남쪽으로 이어지는 산줄기로, 전라남도 광양시 백운산까지 이어지는 노령산맥의 일부이며, 총 길이는 398.7km이다.

본 연구는 호남정맥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방문자의 인문사회적 이용행태와 호남정맥 이용의 만족 여부, 호남정맥의 가치상승을 위한 방법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산자분수령(山自分水嶺: 강과 산을 기준으로 한 우리의 고유한 산맥체계)에 기반한 전통적인 지리 체계를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향후 이용 행태에 기반한 호남정맥에 대한 정책 수립과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초적인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며, 전통적인 지리체계에 대한 자료는 대국민 홍보자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호남정맥 및 호남정맥과 접해 있는 시·군을 물리적 범위로 설정하였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16년 6월에서 9월까지 호남정맥을 방문하는 탐방객 및 인근의 거주민을 대상으로 1대 1 대면설문을 실시하였다. 신뢰성 있는 결과의 도출을 위해 응답자에게 사은품을 제공하였고, 솔직한 응답을 위한 개인적인 질문은 되도록 자제하였다.

설문의 내용은 응답자의 인문사회적 특성, 일반적인 이용행태, 응답자가 생각하는 호남정맥의 가치상승방법 등에 대한 질문과 전통적인 지리인식체계에 대한 질문과 백두대간 및 호

남정맥의 인지 여부 등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설문지의 수집부수는 532부를 회수하여 미완성 설문지와 불성실 설문지 22부를 제외한 510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통계에 사용된 도구는 EXCEL 및 SPSS를 이용하였다.

## III. 연구의 결과

설문응답자의 성별은 여성 41%, 남성 59%였고, 30대의 비중이 47.6%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40대의 비중이 22.9%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호남정맥 인근의 거주자들이 비교적 간단한 산행 등 운동과 건강에 관심이 왕성한 계층에서 많은 활동을 하기 때문으로 판단하였다. 산이나 등산에 대한 정보의 습득 경로에 대한 질문에서 대부분 주위 사람과 인터넷으로부터 등산과 산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이나 등산에 관한 책자를 통해서 관련정보를 습득하는 경우는 1.0%로 가장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응답자가 생각하는 백두대간과 각 정맥의 효과적인 홍보 수단은 인터넷과 TV, 신문 등 방송관련 매체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1회 방문 시 소요된 금액에 대한 질문에서 호남정맥의 경우 50,000원 이상 비용을 소비하는 응답자가 37.5%로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였다. 이 비용은 교통비, 식대, 기타 방문 비용까지 포함한 금액이며, 또한 1인당 평균 방문 비용은 46,586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행한 인원수에 대한 질문에서 호남정맥은 2, 3인이 같이 방문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누구와 동행하는지에 대한 설문에서 가족과 친구끼리 방문하는 비율이 호남정맥은 80.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다른 여가 활동과 마찬가지로 등산도 가족이나 친구와 방문하는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응답자가 판단하고 있는 호남정맥의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한 방법에 대한 질문에서 호남정맥과 연계한 문화관광 시설 등과의 연계 개발을 통한 가치증대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휴양시설의 증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호남정맥에 속한 산을 방문하였을 때 느끼는 만족감에 대한 설문에서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방문자가

56.5%로 가장 높다. 그 다음으로 '대체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37.8%를 나타내고 있다. 호남정맥 방문자의 만족도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대간과 각 정맥을 산자분수령(山自分水嶺: 강과 산을 기준으로 한 우리의 고유한 산맥체계)으로 구분한 것을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우리 고유의 산맥체계를 인식하고 있다는 응답은 호남정맥이용자 7.1%에 불과하고, 모른다는 비율이 60.8%를 차지하고 있으며, 들어보기만 했다는 비율은 32.2%로 산맥체계에 대한 인식이 매우 미흡함을 알 수 있다. 백두대간에 대해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백두대간에 대해 들어보기만 했다는 응답자가 61.0%, 모른다는 응답자는 31.4%, 이에 반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방문자는 7.6%에 불과함을 알 수 있었다.

호남정맥에 대한 인지 여부의 질문에서 호남정맥에 대해 모른다고 대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46.5%이며, 들어보기만 했다는 응답은 47.1%, 알고 있다라고 응답한 방문자는 6.5%에 불과 했다. 이는 백두대간이나 각 정맥의 분류기준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보다 각 정맥에 대한 인지(認知)는 잘 하지 못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IV. 결론

본 연구는 호남지역을 관통하고 있는 호남정맥의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방문 행태와 만족도, 호남정맥의 가치를 상승하기 위한 의견, 그리고 전통적인 지리체계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결론은 호남정맥 이용자들은 가족단위의 30~40대가 주로 주말을 이용하여 방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백두대간과 더불어 12정맥 중의 하나인 호남 정맥의 인식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됨을 알 수 있었고, 각 정맥의 효과적인 홍보는 인터넷과 방송을 통한 효과가 높으며, 방송보다는 인터넷을 통한 홍보가 가장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하였다. 호남정맥의 홍보는 인터넷을 이용한 카페의 개설이나 블로그 등을 활발히 운영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